제 63호 "큰 그림" 보여주기

친구 따라 북한산을 등산하다가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. 친구는 북한산 길을 훤히 잘 알고 있었으므로 표지판 없는 길을 잘도 찾아내고, 갈래길 나올 적마다 이 길은 무슨 성터로 가는 지름길이지만 조금 험난하다는 둥, 저 갈래 길은 결국 같은 성터로 가지만 어느 약수터를 통해 돌아간다는 둥, 제게 매우 자상하게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. 어떨 때는 세 갈래길이 나오기도 하고, 갈래가 다시 곧바로 갈래를 치는 바람에, 산을 조금 오르다보니 완전히 "헷갈려서" 어디가 어딘지 모르게 되었습니다, 그저 친구가 "이 경치가 가장 멋지다"하면 "그렇구나"하고, "저 경치는 해 뜰 때 보면 끝내준다"하면 상상이 하나도 되지 않아도 고개를 끄떡였습니다. 등산이 끝난 후, 온몸이 쑤시는 것을 봐서 제가 열심히 등산해서 산꼭대기까지 올라간 것은 틀림없는데 무슨 경치를 보고 즐겼는지 모르겠더군요. 확실히 본 것은 그저 친구의 뒤통수였습니다. 등산길 지도라도 하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. 지도가 있었다면 위치가 파악되고, 갈림길의 연관성도 한눈에 보였을 것이고 마음의 여유가 생겼을 테지요.

혹시 수업이 등산과 비슷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. 한 학기 내내 한 개념에 대한 내용을 배운다하더라도 중간에 여러 하부개념으로 갈래를 치고, 하부개념은 다시 더 세세한 개념으로 갈래 쳐 나갑니다. 강의 내용을 훤히 잘 알고 계시는 교수님은 하부개념 하나 하나가 서로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,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"멋진" 부분인가를 알고 있지만 내용을 처음 대하는 학생들은 그저 그 내용이 그 내용으로 뒤범벅되어 보이기 일쑤일 것입니다. 숙제를 열심히 해서 A 학점을 받았어도 과연 무엇을 보고 배웠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. 학생들이 확실히 본 것은 칠판에 뭔가 많이 쓰시는 교수님의 뒤통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이때 강의 내용에 대한 지도(地圖)가 있으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.

강의 내용에 대한 지도를 conceptual typology, concept map 또는 conceptual framework라고 합니다. 저는 이 모든 것을 그냥 "큰 그림"이라 말하고 싶습니다. 강의가 시작되는 첫 날에 그 과목이나 학문 그 자체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 이외에 그 과목이나 학문이 다른 과목이나 학문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설명해주는 것입니다. "큰 그림"은 강의 첫 날뿐만 아니라 하나의 토픽을 끝내고 새로운 토픽으로 넘어갈 때에도 필요합니다.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.

1. 다른 교과과목들과의 연관성을 보여준다.
이 과목이 다른 과목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교과과정의 흐름을 설명해주는 것이 좋습니다. 이런 내용을 말로만 설명하기보다 흐름도(flowchart) 같은 그림을 그려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. 교과과정 흐름도는 강의 첫 시간에 보여 주시면 가장 유용합니다.

2. 수업 내용의 주요 개념이나 주요 토픽의 "족보"(taxonomy)를 보여준다.
이것은 특히 자질구레한 sub-topic이 많은 과목을 다룰 때 매우 효과가 있습니다. 하나의 토픽이 두 세 갈래로 나뉘어지고, 또 갈래가 새로 갈래를 쳐 나가는 경우, 특히 sub-topic에 대하여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할 경우에는 학생들이 topic과 sub-topic을 혼동하기 쉽습니다. 따라서 새로운 sub-topic이나 토픽으로 넘어갈 때 토픽의 "족보"를 보여주면 학생들이 그날 강의의 "위치"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.

3. 교과서 내용의 연관성을 다차원으로 다시 정돈(map)하여 보여준다.
교과서 내용(차례)이나 강의 내용은 어쩔 수 없이 순차적으로 정돈되어 있습니다. 순차적(sequential)이란 일차원적이란 말이 됩니다. 하지만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이차원이나 삼차원적으로 정돈해 보여 줄 수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교과서에는 내용이:
개념1--응용1--개념2--응용2--개념3--개념4--응용3&4--개념5--
등의 순서로 전개된다면, 교수님께서는 내용을 개념 차원과 응용 차원으로 재정돈할 수 있겠습니다.

I
개념 I
I
I_____
응용

"큰 그림"에 대한 설명을 글로써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군요. 죄송합니다. 다음 기회에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

<<편집 코너>>
제가 지난 2주간 출장 다녀오느라 제게 연락주신 여러분께 답장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.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ⓒ 조벽, 2000